

▶ 법회 및 기도 안내 ◀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영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20분
- 불교강좌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후 8시
- 어린이 법회: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일요일 오후 14시
- 어린이 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참선수행: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공지사항 ◀

2015년 신년 특별 법회안내

- 1월 11일(일) 오전 11시, 화공스님, 위스콘신대 불교학박사, 유마경강설
- 1월 18일(일) 오전 11시, 선학스님, 동국대한의학 박사
- 1월 25일(일) 오전 11시, 현전스님, 북경대 철학박사

▶ 기도 동 참 (1월4일 - 1월 10일) ◀

- 법등: 조성열 송수진 일심화 금운심 박병란 홍인한
홍슬기 홍슬옹 홍주연
- 인등 만등: 일심화 홍슬옹
- 기도: Erica Chung(백일기도) 조창연 홍인한(신중)
배수진(구정 설날제사)
- 대중공양: 마봉희 이현심화(과일) 법연행(떡)
김태연(떡) 이미나 불국화(꽃)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일요법회

불기 2559(2015)년
1월 11일 제23호

4360 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T:773-286-1551



부처님 말씀

이 몸은 허무하여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나니
마음을 튼튼한 성곽처럼 굳게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듯 지혜로써 악마를 잘 조복시킨 자는
그 무엇에도 집착함이 없이 정진의 길을 간다.

- 법구경 -

오늘을 살아가는 불교도의 역할

인생의 비극은 비교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부모로부터 생-생명生命-을 받아 각자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사명使命-을 가졌지만 삶의 과정에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명命을 달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각자의 타고난 숙명宿命에 의해서도 그러하거니와 삶의 과정에서 배운 성현의 가르침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그 숙명을 혁신革新-혁명革命-하지 못하여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현의 가르침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변의 조건들에 마음을 빼앗긴 순간부터 내가 운전하는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또 다른 어딘가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삶의 결말은 흔히 비극으로 끝난다. 그곳은 내가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여 항상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다르는 곳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보람된 삶을 추구한다. 자식으로서의 해야 할 일, 부모로서 해야 할 일,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 등 등 해야 할 일을 이루기 위해 성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의 명命을 내 스스로가 운전해 그 목적지에 다다름(이것을 우리는 흔히 운명-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생명을 내가 운전하여 이르는 곳)으로써 보람된 삶을 영위한다. 그(보람이라는)곳은 성현의 가르침을 배워 실천하고 이루었을 때 다다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양명학의 창시자 왕양명은 "안다는 것<지知>은 행行하는 것의 시작이요, 행行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의 완성이며 그것[지와 행]은 하나의 일이다."라고 했다.

불교도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운명-이란 무엇일까? 태양은 만물에 차별 없이 비추지만 하나의 장애가 생기면 그것에 의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가 잘살고자 만든 우리의 사회 역시 성현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늘진 곳이 우리의 주변에 널 버려져 있다. 우리의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을 그 속에서 뛰어놀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직한 어두운 그늘이다.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조그마하지만 빛을 발하는 이들이 있다. 아무도 몰래 스스로를 희생하며 어두운 그늘 속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도움이라하여 태양과 같이 만물을 기를 수 있는 따스함을 안기는 것이 아니라, 구석진 곳, 어두운 곳에 한 가닥 빛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이다. 이것이 불교도들의 사명이다. 이것이 무명 보살들이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러한 어두운 한 구석을 밝히는 것을 일등조우-燈照隅라 한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내 이웃에 한 가닥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그리하여 이웃에게 있어서는 비교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어두운 구석에서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빛으로 존재하는, 이것이 불교도가 스스로의 명을 운전해 나아가야 할 운명이다.

